학교 급식, 쇠고기가 사라진다

학생들 기피·학부모 요청따라…광주 45곳 6월 메뉴 제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광주지역 학교 급식의 쇠고기 메뉴가 자취를 감췄다. 아예 쇠고기 반찬을 빼는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넣더라도 한 달에 1~2번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주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용 쇠고기의 경우 한우만을 쓰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6월 식단에서 쇠고기 메뉴를 아예 넣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21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3곳 등 45곳에 달했다. 전체 초·중·고교 282곳의 16%에 해당한다.

쇠고기 메뉴를 식단에서 뺀 이유는 우선 학생들이 기피한 경우, 학부모나 교사가 요청한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최근 광주시내 한 쇠고기 전문 식당이 원산지를 속여 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육당국의 한우 사용 홍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광주 동부교육청 소속 중학교 3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들이 6월 식단에서 쇠고기 메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33곳 중 11곳은 6월 식단표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았거나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대상 학교 22곳 가운데 문화중, 양산중, 각화중, 동신중, 동신여중, 중앙중, 살레시오중, 조대부중 등 8개 중학교는 6월 식단에 쇠고기 반찬이 아예 없었다. 나머지 학교들에서도 쇠고기 감자국, 쇠고기 무국, 오징어 불고기, 쇠고기 미역국 등 쇠고기 반찬이 6월 한 달 동안 1~2차례 밖에 제공되지 않을 계획이다.

광주시 중·고등학교 영양사회 윤영란(북성중 교사) 회장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요구로 인해 쇠고기 메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신경이 쓰인다는 학교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신 돼지고기나 닭고기, 생선의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쇠고기 반찬을 대신해 학생들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돼지갈비찜, 돈등뼈우거지탕, 매실액삼겹살볶음 등 돼지고기 반찬과 닭도리탕, 깐풍기, 오리탕, 닭다리살 양념 등 닭·오리 반찬, 고등어구이 등 해산물 반찬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쇠고기 반찬 기피 현상이 빚어지자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의 한우 사용에 대한 홍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영양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봉사단이 구매 과정에서부터 한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치평초 김소영 영양교사는 "광주시내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쇠고기는 한우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리고 있긴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였을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 때문인지 학부모의 불안감을 완벽하게 없애기는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빛고을 생활협동조합 등 여성·학부모단체들은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성난 엄마들의 함성'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

광주 촛불도 '예비군 부대' 떴다

폭력·충돌 방지 나서

광주지역 촛불집회에도 '예비군 부대'가 떴다.

서울 촛불집회에 지난달 말부터 출현한 예비군 부대는 군복을 입고 촛불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온몸으로 막고, 시민·경찰 간 충돌을 보호하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모이고 있다.

이와 같은 예비군 부대는 광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예비군 관련 카페가 10여개 개설돼 있으며, 전라권 게시판을 중심으로 모여 매일 7~8명이 예비군 복장으로 촛불집회에 나와 활동 중이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10일에는 예비군부대가 발대식을 한 후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회원 수 5천800여명에 이르는 인터넷 카페 '대한민국을 지키는 예비군'은 10일 오후 촛불집회장인 광주시 금남로에서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이들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당신들이 있어 참 좋습니다'(아이디 '땅끝아짐'), '정말 든든한 거 아시죠'(아이디 '나니아')" 등의 글이 올라있다.

예비군 부대원으로 활동 중인 권모(27)씨는 "폭력 시위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쑥스럽지만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며 "촛불 집회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정부에게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일부 시위자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전남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

나주 40대 생선회먹고

전국에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전남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숨진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 동강면 서모(여·49)씨가 지난 달 생선회를 먹은 뒤, 복통과 발열 증세를 보여 전남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5일 숨졌다.

B형 간염을 앓아 왔던 서씨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뒤, 눈 주변에 수포가 생기고 피부가 검게 변색되는 등 전형적인 비브리오패혈증 증세를 나타내 나주지역 병원을 거쳐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도는 서씨의 가족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일 전남 일부 해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원인균이 발견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를 발령했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촛불 참여" 교수들도 거리로

광주·전남 교사·시민단체 등 시국선언 잇따라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참가하는 '촛불대행진'이 10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교수와 교사를 비롯, 시민·사회단체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교수들이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반도 대운하 등 각종 시국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발표하거나 준비중이다.

조선대 교수 200여명은 10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항쟁 21주년 조선대 교수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촛불시위가 격화되면서 더 이상 침묵으로 현 시국을 방조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기에 조선대 교수들은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전남대 교수들도 오는 12일께 시국선언을 위해 서명을 진행 중이며, 9일 현재 50여명이 서명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대 교수들은 10일 순천역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광주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논의 중이다.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 교사 5천521명(315개교)은 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면 재협상 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역시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전국 학교 대표자 선언'에 힘을 보태기 위해 518명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는 9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전남시도당사 앞에서 '6월항쟁 21주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저항운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미숙함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광주 여성단체와 학부모들도 성명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에 전투경찰 병력이 아닌 교통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에 배치, 질서 유지를 유도할 계획이어서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필·이종행기자 camus@

인사 청탁 대가성 돈 전달

이정섭 담양군수 아들 구속

담양군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9일 인사청탁 대가성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이 군수의 아들(36)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의 아들은 2006년 6월께 자신의 큰 아버지(75)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이 중 900만원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큰아버지 이씨는 사돈으로부터 "아들이 군청에 특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버릇 없다" 욕설 격분

동네 선배 흉기 살해

완도경찰서는 9일 동네 선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정모(46)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8일 밤 11시 30분께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자신의 세탁소 앞에서 흉기로 김모(56)씨를 찔러 살해하고 이모(50)씨 등 2명의 배와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다른 동네선배 2명이 자신을 보고 "버릇이 없다"며 욕설을 하자 이들과 주먹다짐을 했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군납 싸게 주겠다" 속여 수억 꿀꺽

쌍나팔

○…광주서부경찰은 9일 미군 군납품을 싸게 사 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유모(여·45·서구 풍암동)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A(여·51)씨에게 "미군 군납품을 헐값에 구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말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현금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A씨에게 "미군 영내매점(PX)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속여 자동차와 골프채 등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받아 챙긴 것.

○…유씨는 또 A씨에게 "딸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160만원을 챙긴 것도 경찰 조사에서 들통.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